



반갑다, 예향

25일 11년 만에 복간된 '예향'에 대한 지역민들의 기대감은 상상 그 이상이었다. 각계 인사들은 예향 복간에 따른 반가움과 기대를 동시에 드러냈다. 이들은 '예향'이 문화예술 전반의 특화된 기사를 통해 문화가 향유되고 소통되는 구심체가 되어달라는 희망을 피력했다. 특히 오는 2015년 아시아 문화전당 개관에 맞춰 문화담론을 제공하는 동시에 일상과 관련된 생활 밀착형의 기사를 반영해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편집자 주>

광주 넘어 세계와 소통·공감하는 구심체 역할 기대

남도의 꿈·희망 메시지 전해줬으면

▲하철경 (한국예총 회장)



11년만의 예향 복간을 전국 130만 예술인들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과거 '예향'은 남도인들의 삶의 체취를 담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여 즐겨 애독한 정통예술지였다.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프로젝트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나주혁신도시 이전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정책은 지방시대의 도래라는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특히 광주·전남은 21세기 새로운 문화정책의 구심체가 된다는 점에서 예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이다. 고품격 문화전문지로서 꿈과 희망을 주는 이야기들을 많이 소개해주길 바란다.

'예향 광주' 널리 알리는 메신저로

▲김종용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장)



예향 광주가 세계로 성장할 수 있는 문화예술 동력을 바탕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문화예술은 단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또 시간이 갈수록 그 깊이가 쌓이고 현재를 만나 발전을 이취, 미래의 문화콘텐츠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2014년 완공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아시아와 세계에 광주와 아시아문화를 널리 알리는 문화발전소인 것처럼 월간 '예향' 또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거듭나는 '예향 광주'를 널리 알리는 메신저가 되기를 기원한다.

지역정서 대표할 문화예술지 되어주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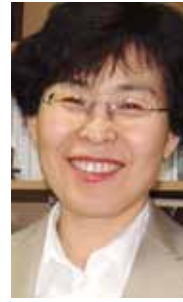
▲김한아 (전남대 2년)



미술과 연이 깊으신 아버지 덕에 '예향'은 집 안에서 쉽게 눈에 띄었다. 당시 어린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藝鄉' 제목이 떠다니는 먼지와 함께 다소 쓸쓸스럽게 빛났던 그 장면이 기억난다. '예향'이 복간된다는 소식을 접하니 그 때의 장면이 선명한 스틸컷으로 다시 떠오른다. 11년이라는 공백기간 동안 예술계에는 많은 변화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 새로운 기류들을 모두 담아내주길 바라는 것은 지나친 기대일까. 다만 지역의 정서를 대표하는 문화예술지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것은 과한 기대가 아닐 것 같다.

역사와 문화·인물과 예술, 깊은 사색 담아

▲이미란 (소설가·전남대 교수)



올 들어 가장 기대했던 일 중의 하나가 '예향'의 복간 소식이었다. 십일 년 전 '예향'이 '무기 휴간'된다는 소식이 적잖은 충격이었다. 그런 '예향'이 복간된다니, 축하와 감사를 함께 드린다. '예향'처럼 요즘의 키워드인 글로벌(global)의 개념에 딱 어울리는 잡지도 없었다. 전라도의 역사와 문화, 인물과 예술에 대한 깊은 사색과 탐사는 가장 지역적이면서도 세계 문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성의 보고였다. 부디 '예향'이 그 맥을 이어가며 광주와 전라도와 세계가 상상 보완하는 소통과 공감의 아카이브(archive)가 되기를 기원한다.

지역예술 공유... 전국적 커뮤니케이션 채널로

▲조용준 (조선대 건축학부 교수·광주건축단체 연합회장)



광주일보의 예향 복간호의 발행을 축하한다. 돌이켜 기억해보면 지난날에 예향은 예술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발신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해왔던 지역의 자존심이었다. 이를 통하여 지역사람들의 예술적 역량을 높이고, 여러 장르의 예술인들이 공유인식을 갖게 하는데에 큰 공헌을 했다. 다행히 예향이 아시아 문화전당의 준공을 앞두고, 복간하게 돼 이러한 역할의 지속은 물론, 타 지역사람들이 우리지역 예술을 공유하도록 하는 전국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되기를 기대한다.

분석·조명·토론·좌담의 공간됐으면

▲김승일 (작곡가·조선대학교 명예교수)



'예향'이 복간된다 하니 마치 새봄이 온 듯 감회가 새롭다. 십수 년 전 월간으로 나오던 '예향'이 활자매체이다 보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을 나는 제호에 '예'자가 있는데 어찌 문학, 미술 위주의 지면이냐고 때를 쓴 적이 있었고 그래서 약보가 실린 적도 있었다. 지금 생각해 보니 내가 좀 억지였구나 싶은 몇 째은 추억도 있다. 지금 우리 고장 문화계는 어떤 현상에 대해 큰 아이টে모로 집중 분석하고 조명하며 토론하고 좌담하는 공간이 거의 없지 않나 싶다. '예향'이 그런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문화 담론·생활밀착형 기사... 읽는 재미 쏠쏠

전면 컬러 200P 문화예술 전문지

인터뷰·역사기행 등 콘텐츠 풍성



문화역사기행에서 다룬 다산초당의 천일각.

광주일보 자매지 월간 '예향'이 25일 새얼굴로 돌아왔다. IMF 경제한파 이후 지난 2002년 2월호(통권 209호)를 끝으로 발행이 중단된 지 11년 만이다. 지난 84년 10월 창간된 예향은 2002년까지 17년동안 호남사람들에게 깊은 사랑을 받으며 전라도 대표 잡지로 불려왔다. 광주일보는 창사 61주년을 맞아 '예향'복간에 대한 지역민들의 오랜 요구와 고품격 문화예술 교양지에 대한 갈망을 담아 1년여의 준비를 거쳐 4월호 복간을 추진해왔다. 11년만의 복간이지만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걸맞는 세련된 모습으로 돌아왔다.

전면 컬러에 200페이지로 발간된 이번 4월호는 지역과 국내외를 포괄하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가 수록돼 눈길을 끈다. 지난 시절에 비해 문화 환경이 크게 바뀌었고 문화를 향유하려는 시민들의 폭발적 욕구를 감안, 문화 예술 전반을 아우른 기획과 생활과 밀착된 아이템을 반영했다.

첫 번째 커비스토리로 오는 2015년 '아시아의 문화허브'를 놓고 자존심 대결을 펼치고 있는 홍콩과 싱가포르, 그리고 광주의 문화현장을 다뤘다. '불불은 아시아의 문화전쟁'이라는 제호의 특집기획에서는 홍콩의 서구풍 문화지구 프로젝트, 싱가포르의 르네상스 시티 프로젝트를, 광주의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사업 등 세 도시가 벌이는 문화전쟁의 현장을 생생한 현지취재를 통해 다각도로 조명했다.

해외취재는 '신의 나라' 인도로까지 이어진다. '아시아스토리로드'로 명명된 이 기획은 아시아 각국에 산재해 있는 서사의 원형을 찾아내고 문화로 전이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했다. 두 번째 커비스토리에서는 11년만에 복간한 '예향'의 변천사와 복간을 바라보는 각계 20인

의 목소리를 담았다. 특히 89~91년 예향에 '갯나루' 연재를 계기로 유명해진 광주출신 판재구 시인의 '이런 예향을 원한다'는 지난 시절의 추억과 함께 읽는 맛을 더해준다. 세계적 피아니스트 한동일이 빗고을에 동지를 틈 이유를 스페셜 인터뷰를 통해 들어왔고 '마주앉은 책과 삶'에서는 베스트셀러 작가 성석제가 읽어온 책의 면면을 엿보았다. 문화역사기행에서는 강진 다산초당을 찾아 유배지에서 꽃피운 다산의 학문과 삶을 살펴보고 시인 이대흠이 찾은 장흥에서는 '죽제'와 '서편제'의 작가 이청준의 문화흔을 오롯이 만나볼 수 있다.

생활밀착형 기사도 읽는 재미를 쏠쏠하게 안겨준다. '美로미로'에서는 아름다움과 맛이 공존하는 담양의 대담미술관을 둘러보고 향토 음식인 대담밥과 떡갈비를 소개한다. 봄꽃이 만발하는 지역의 축제도 빼놓을 수 없는 코스다. 천사의 섬으로 예술의 날개를 퍼는 신안 아트아일랜드, 기의 고장 영암의 왕인박사 축제, 동심이 깃든 함평의 나비축제는 독자들의 발걸음을 재촉한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www.kjhr.com

since 1982

창업 31주년 **국제보청기**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지하 1,2층 **할인매장** 1,2,3층 **이태리 가구** 4,5층 **모던,혼수가구** **NAVER** **홍스페이스** ☎ **1899-0240**

홍스페이스 TV 거실장 무료증정 행사 홈페이지 참조

동구청엽 장동로터리 58-15
홍스페이스 가구빌딩 400평